

사명

(가제)

각본 / 황유민

010-2242-4275

ghkd3225@naver.com

주제

무거운 책임을 쉽게 버렸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무거운 법이다.

소재

계획에 없는 또는 순간의 실수라는 무책임으로 낙태를 하는 이들을 소재로 다뤘다.

연출방향

불임, 시험관아기 [생물학, 현대의학] vs 부적, 태몽꿈 [민속적 신앙, 미신]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수진의 숨겨진 과거를 보여주며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행위였음을 보여주는게 목적이다.

유모차 씌, 피가 물드는 씌와 같이 수진의 정신적, 심리적인 상태를 판타지적인 요소로 극대화시켜 보여준다.

시각표현

채도와 명도가 높고 짙은 색감. 빨간 과일 등 진한색의 시각적인 요소를 부각하여 선명하게 표현한다. 밝고, 어두움의 대비 그리고 따뜻하고 차가운 대비를 양극화시켜 다채롭게 보여준다.

인물소개

[수진] 27세, 민철의 아내, 행복한 가정을 위해 임신을 목표로 노력한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던 정신적으로 많이 허약한 인물. 하지만 아이를 갖기 위해 약을 끊는다. 약을 끊은 이후로 더욱 피폐해져만 가는데 이 모든 연결고리가 그녀의 과거와 연류되어있다.

[민철] 27세, 수진의 아내이고, 부유한 집안의 장남이다. 수진을 사랑하기에 임신준비에 있어 많이 생각해주고 존중해주는 다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장남인만큼, 그의 부모님은 손주욕심이 강하다.

S#PR

온통 하얀색인 어딘가에 있는 수진, 가운데에 자두나무 한그루가 떡하니 서있다.
한손에 바구니를 들고 한손은 자두를 따서 담는다. 손에 쥔 새빨간 자두. 코 가까이
향을 맡는다.

그리고...담으려는 순간 경악을 하는 수진.
바구니에 보이는건 썩은 껍질의 자두들 그리고 속 사이에 송충이들이 기어다닌다.
손에 쥐고 있던 자두를 다시 보는데.. 썩은 살 사이사이 송충이들이 드글드글하다.

S#1 화장실 / 아침

임태기를 확인하는 수진. 임태기에는 한줄만 그어져 있다. 한숨을 쉬는 수진.

S#2 부엌 식탁 / 아침

밥을 먹는 수진과 민철.

민철: 아까 아침에 깰 때 혈떡이면서 깨던데..또 악몽 꾸거야..?

수진: 응...

민철: 약을 다시 먹어야하나..자기 요즘 더 안좋아지는거 같아 걱정이네

수진: 아니야 아기를 위해서라면..

민철: 너무 힘들면 말해. 클리닉이라도 다녀보자

CUT TO

민철: 다녀올게 여보~ 배 항상 따뜻하게 하고 보약도 잊지말고 챙겨먹고

수진: 응 잘갔다와

민철: 너무 부담갖지마 (안아주며)

수진: 알겠어

민철: 아 오후에 엄마 오신다했는데 아마 나 퇴근할때쯤 오실거야

현관문이 닫히고,

수진은 컵에 보약을 따라 마신다. 그리고 앞에 놓인 달력을 들어올린다. 달력에는 주
기마다 적힌 실패 단어들 보인다.

S#3 거실 / 오후

초인종이 울리는 거실 안. 민철의 엄마가 들어온다.

민철母: (커피를 마시며) 그래서 아가, 임신 준비는 잘 되어가니?

수진: 어머니가 주신 보약 잘 챙겨먹고 있어요.

민철母: 조짐은 좀 보이고?

수진: (고개를 푹 숙이며)

뜸들이더니 무언가를 꺼내는 민철의 엄마. 부적이다.

민철母: 생물학적으로 안되면 신적으로라도 해봐야지.

수진: 어머니..이게 뭐예요?

민철母: 곁에 두고 다니면 종단다.

수진: (부적을 손으로 미루면서) 어머니...

민철母: (언성이 커진다) 어머, 애가.. 이게 불임인 여자들한테 엄청 효과적이란다! 보약에 이거까지도 안되면 보살님 부르는거야.

수진의 좋지않은 표정.

S#4 식당 / 오후

수진의 고등학교 시절 동창들이 모인 자리. 수진은 자리에 앉으며 휴대폰을 위에 올린다. 핸드폰 투명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부적이 보이고,

친구1: 야 이게 얼마만이야 김수진~

친구2: 그니까 결혼식 때 보고 처음 아니야?

수진: 어 (웃음) 그러네.. 너네는 잘 지냈고?

친구1: 애기 키우랴 남편 밥 챙기랴

친구1, 유모차에 타고있는 애기 사진을 보여준다. 보고 흐뭇하게 웃는 수진.

친구2: 그때만 고생하면 돼~ 나는 이제 좀 컸다고 내 시간 좀 생기드라

친구1: 아 맞아, 유준이때는 분유 뭐 먹였어?

친구2: 뭐 먹였더라...아! 메비르거 먹였었다~

친구1: 수진이는 2세 계획 잘 돼가?

수진: (멋쩍은 웃음) 잘..안되네....장남이라 그런지 손주욕심이 크신거 같더라고..
친구1: 남편은 잘 해줘?
친구2: 그래도~부잣집 집안 아니냐.. 난 수진이 시집 잘 갈줄 알았어
친구1: 그치, 수진이 공부도 잘했지, 출석도 매일... 아, 한 일주일 심하게 아파서 안
나왔나? 그때 빼곤 뭐
친구2: 그니까, 그렇게 출석에 목매다던 애가.
수진: 너네 10년전 일인데 그걸 기억해..?
친구2: 어우야~ 당연하지~
친구1: 너무 부담갖지마 수진아~ 아니면! 요즘 시험관? 내 지인은 그렇게 성공해
서 잘 낳고 잘 살잖아.
친구2: 아~맞아~ 시험관아기?

S#5 주차장 엘리베이터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한 주차장 복도를 걷는 수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열리는 문... 놀라는 수진. 엘리베이터 한 가운데에 유모차 한 대가 놓여있다. 수진의 동공이 커지고.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된다. 다시 닫히는 문. 침을 삼키며 버튼을 다시 누르는 수진. 열리는 문, 같은 자리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S#6 안방 침대 / 밤

침대에 앉아있는 수진. 침대 위에는 아기 배냇저고리가 있다. 스윽 더듬는다. 그리고 가방 속에서 꺼내는 무언가. 주사기와 약물이 담긴 공병, 그리고 종이에 '난 소 자극', '투여시 주의사항' 문구들이 간간히 보인다.

V.O: 시험관? 내 지인은 그렇게 성공해서 잘 낳고 잘 살잖아.

고민하는 수진의 표정. 그리고 한참뒤..... 배에 주사기를 꽂는다.

S#7 집 거실 / 오후

달력을 보는 수진. 주기마다 실패로 되어있고, 한숨을 쉰다. 울리는 초인종 소리.

민철母: 인사드려. 저번에 말씀드린 보살님. 이쪽은 우리 며느리

들어가는 보살.

칼과 칠금령, 거울을 꺼내고 제사향초에 불을 붙인다. 칠금령을 세게 울리며 집안을 거닌다. 커튼을 닫고 어둡게 한 후, 딸랑딸랑 곳곳에 대고 흔든다.

보살: 며느라기가..많이 허약하네...기가 약해~ 기가 약한 자에게 잘 붙는게 귀신이야.

민철母: 임신준비한다고 약 끊었거든~ 그래서 그런가~?

다시 딸랑딸랑 칠금령을 울리며 안방을 거닐다가 뭔가에 꽂힌듯 수진을 향해 달려가 얼굴 가까이 칠금령을 올린다. 그리고.....머리 위에 뭔가 있는 듯 쳐다보는 보살.

보살: (삼백안이 보일만큼 눈을 치켜뜨며) 10살 여아가 붙어있네.

수진: 10살이요...?

보살: (누구와 대화하듯) 한이 맺혔어~ 엄마한테~

수진: !?

보살: (머리 위를 보다가 수진의 눈을 괴상하게 빤히 쳐다본다)

CUT TO

보살: (짐을 싸며) 제대로 쫓아야돼~ 그래야 풀릴거야~ (부적 2장을 주며) 거실 하나 안방 하나 숨겨놔

그리고 수진에게 쌀을 냅다 뿌리며 던진다

보살: 쫓쫓쫓, 그러게 왜 죄를 질러서.

S#8 거실 / 밤

안방 벽, 거실 벽 하나씩 붙어있는 부적 인서트들이 나오고.

수진은 쇼파에서 자두를 먹으며 티비를 보고있다. 괴즙이 주르륵 턱에 흐른다.

먹다가 잠깐 잠에 든 수진...

CUT TO

온통 하얀색인 어느 방, 초등학교 정도 돼보이는 여자아이가 어느 남성과 놀고 있다. 여자아이는 장난감 칼을 들고있고, 남성의 얼굴은 보여주지않는다. 웃는 수진의 얼굴 클로즈업.

여아: 엄마~같이 놀자 일로와

남자: 그래 자기야 빨리와

수진 웃으며 끄덕이며 가려던 찰나

여아: 엄마, 근데 재는 누구야?

손가락질을 하는 여아. 수진, 고개를 밑으로 내려다본다.

CUT TO

수진 잠에서 깬다.

S#9 화장실 안

떨리는 마음으로 임테기를 확인하는 수진. 임테기에 2줄이 떠있는 것을 확인한다. 손으로 입을 막으며 기쁨을 감추지못한다.

S#10 산부인과

대기의자에 앉아있는 수진. 옆에 앉은 볼록한 배의 임산부를 보고있다. 그리고 덜컥 열리는 진료실 문.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눈치를 보며 나온다. 나오는 여학생을 한참 바라보는 수진, 생각에 잠긴 얼굴이다.

간호사: 김수진 환자분, 들어가실게요

수진: (멍때리는 표정)

간호사: 김수진님 안계시나요?

수진: (정신차리고) 네!

S#11 진료실 안

의사: 임신 맞으시네요. 아이가 자리를 잡아야하는 시기니까 주의해주셔야 돼요. (모니터 보며) 복용하시던 우울증 약도..

수진: (말 끊으며) 애기 준비하려고 한참 전에 끊었어요! (설렘에 들뜬 얼굴)

의사: (웃음) 네~끊으셨고, 그러면 현재 복용하는 약은 아무것도 없으시고...(기록을 한참 보더니) 그런데 환자분,

수진: 네?

의사: 혹시.....수술 경험이 있나요?

수진: (흔들리는 동공)

의사:낙태라든가

천천히 클로즈업 되는 수진의 얼굴. 초점없는 한 대 맞은듯한 표정. 이명소리가 들리고.

S#12 플래시백 몽타주 / 10년 전 수진의 과거

1. 길 한복판

교복을 입은 과거 수진과 남자친구가 측면으로 보인다. 장난을 치며 도망가는 수진. 그런 수진을 잡으려 뛰어가는 남자친구. 무해하게 웃는 둘의 모습이 슬로우모션으로 걸린다.

2. 방안

방문 앞 마주보고 있는 둘. 미묘한 분위기

수진: (높은톤으로) 야 안돼~ 부모님 오시면 어찌려고

남자1: 괜찮다니까~ 오늘 안오신댔어

수진: (못이긴다는듯이) 아이....야!

둘은 방으로 들어가고, 방문은 닫힌다.

3. 병원 문 앞

돈 봉투를 들고있는 수진. 문 앞에서 한참을 서있고, 망설이듯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

고 한손으로 자신의 들어가있는 배를 만진다.

4. 진료실 안

돈봉투가 오고 가고, 외면하듯 좋지않은 의사의 표정이 비쳐진다.

5. 수술실 안

어둡고 싸늘한 수술실 안, 빛 한줄기만 비쳐지고, 그 사이에 수술도구들이 보인다. 수술실에 누워있는 수진. 표정이 흐릿하다.

수술실 불이 환하게 켜지고, 수진 시점에서 보이는 의사 얼굴. 수술실 불에 가려져 역광으로 보인다. 딱-딱-딱- 일정한 음에 맞춰 눈을 감는 수진. 눈물 한방울 고개로 떨어진다.

S#13 안방 / 아침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그리고 온기가 가득한 침대에 하얀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자는 수진.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다. 수진의 배는 만삭인듯 볼록하다. 집 곳곳에는 아기용품들이 보인다. 전과는 사뭇 다른 밝은 느낌이다. 부적이 있던 자리에는 한글 자음모음집이나 동화책들이 있다.

CUT TO

온통 하얀색인 어느 방, 저번에 꿰던 꿈과 동일한 곳이다. 또 초등학생 정도 돼보이는 여자아이가 서있다. 남성의 얼굴은 여전히 보여주지않는다.

여아: 엄마, 근데 재는 누구냐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여아. 수진, 고개를 밑으로 내려다보며 꿈이 이어진다.

수진 시점에서 보이는 볼록한 배. 손으로 쓰담는 수진. 웃으며 고개를 든다.

수진: 응~애는~

고개를 들자마자 코앞에 있는 여자아이.

여아: (섬뜩하게) 나 버렸잖아 엄마

들고있던 장난감 칼이 수진의 볼록한 배쪽으로 향하고.

CUT TO

깨는 수진. 땀에 젖어있는 얼굴. 그리고 침대 밑으로 ‘엄마가 되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의 책이 떨어진다.

수진: (고통스럽게) 악...!악....아!...악...

혈떡이며 고통스러워하는 수진. 볼록한 배를 움켜잡는다. 고통의 강도는 점점 세지는 듯, 몸부림 치며 이불을 구겨가며 더듬는다.

“폭..폭...” 살을 움푹 찌르는 듯한 소리가 한번..두번.... 나면서 하얀 옷색깔 수진의 배에 붉은 액체가 터지듯 이곳저곳 물들며 퍼진다. “폭” 소리는 커지며, 수진의 악소리도 커진다.

그리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수진의 과거 플래시백 수술실 장면들.

수진: 내가..(혈떡이며 후회하듯) 그랬으면 안됐어..

수진의 새하얀 옷은 전체가 피로 흥건히 물들어있고. 이제는 괴성을 지르는 수진. 클래식 음악은 계속 흘러나온다.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는 모습과 플래시백 장면들이 빠르게 교차편집 되며 고통의 한계 끝을 보여준다.

수진: 아아아아아아악!!!!!!!

괴성이 끝나고, 조용해진 방...

그리고 천천히 클로즈업되며 아기용품들 너머 보이는 수진의 측면 침대샷.

눈물을 머금은 수진...상실하고 낙담한 표정이다.

천천히 털다운되며 보이는 수진의 배.

평평한 배가 비쳐진다.

배 위에 손을 올려보는 수진.. 더듬어 만져본다
소중한 것을 잃은 듯 서러운 눈물과 함께 클래식 음악소리로 끝난다.

암전.

타이틀인.